

“제주 본향당 이야기”

- 신천리 현씨일월당 신화 -

1. 채록대상자 : 오춘옥/영감놀이 전수조교
2. 채록일자 : 2017.04.04

옛날에 아버지는 현씨고 어머니는 고씨, 두 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애기 낳는 것이 한 명 두 명 나단 보난,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은 모르쿠다만 열두 오누이를 솟아났젠 합디다.

열두 오누이가 나난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라 보리밥도 기립고 모든 음식이 배불리 못 먹던 그 시절에, 살단 보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멩이 쫄란 하나 죽억 두 개 죽어 하는 게 다 죽언.

젤 우에 맞이로 오라방 한명이 살고 맨 끝에 막내 여동생이 한명이 살았는데, 딸이, 오누이가 이젠 옛날엔 어려운 시절이난 밥도 웃언 배고프고 밥 얻어먹을 디도 없고 허난 의지할 데가 웃언 동네 일가방상 집이 산디, 동네 집이 산디 확실히 몰라도 동네 집이 간, 오라바님은 원 쇠도 가꾸고 말도 보곡 그 집안에 장남같이 일 도와드리면서 밥을 얻어 먹영 살고, 누이동생은 심부름 밥도 하곡 지들커도 해오곡 물도 길어오고 빨래도 하고 그런 심부름을 하면서 오누이가 일상생활에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누이동생이 한번은 현씨애기가 우물가에 물질러 샘물에 간 보니까, 물팡돌 아래 허벅허영 옛날엔 땡길 때니까 허벅 부러될 영 보난 유다른 주머니가 하나이서, 아 이게 뭇고 헨 어린마음에 그걸 봉간 보니까, 돈 여섯넛 육간제비란 한 게 이시난, 그걸 장난감 같이 자파리 삼아 이 허리에 치매곰에 찬 땡기명 살아가는 게 2,3년 살아가난 그게 막 현씨 애기가 병이 난 피일차일 피일차일 막 아판 죽도 힘도 하나도 없고 나른하게 울언.

누우면 귀에 굿소리만 쟁쟁쟁 북소리만 쟁쟁쟁 항상 들려가, 경해도 이게 누구 부모라도 이시면 굿이라도 해주고 걸 뒷받침해주고 어떻게 병원에라도 데령가주마는, 부모도 없고 허니까 그런대로 힘들어도 살아가는 디 하루는 있다 보난, 동네에 큰 굿을 막 큰데 세완 와랑사랑 험시난 저 집이 굿 구경을 하도 가고젠 허연, 힘 어서도 맹심행 그디 간 올레 어긋담에 간 담 고망으로 굿을 영 보느렌 허난, 그 날은 큰 굿 해연 시왕맞이날이 되연 아이고 시왕맞이날은 되난 큰 심방은 영새멍기 들런 올레로 오리 정 신청괘를 붙연 염라대왕을 막 청해오는다,

아 어평한 애기가 올레에서 담 고망에 사네 굿을 뵈서, 이젠 일월대목을 되난 큰 심방이 소미고라 저 올레에 이신 애기 강 돌아 오라, 돌아 오난 그 애긴 나풀애기야

요 떡이나 하나 먹으라 공깃상에 이신 떡 하나를 주멍 떡 맥연 춤이나 춰보라 나 똥 애기야 허난, 아 이 애기가 춤을 추는디, 너무 예쁘게 춤을 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영 헌디 감장을 확 하게 도는디, 치맏깍이 바람에 푸닥하게 불런 큰 심방 눈에 이상한게 보연,

“현씨애기 나똥애기야 이리 오라 보저” 영 행 보난 그 주머니 속에 육간제비가 돈 여섯 닢이 이션,

“아이고 설운애기야 니 그냥 못산다. 나영 이 나영 심방해사 산다. 수양딸 해영 오라 요 연물구덕 정 댕기멍 나영 굿 허게이 굿 허래 댕기라.” 아 그 어머니 정헌 이젠 그때부턴 굿 밧디 댕겨가난 굿도 배우고 연물 치는 것도 배우고 북두드림 장구두드림 징두드림 춤추는거 말명떨이 재떨이 배웁 큰 심방들을 막 해간 내싸가난 한해 두해 살단보난 이제 오라방도 나이가 어느정도 되고, 누이동생도 나이들고 큰심방질을 해가는 게 동네에서 소문들언 그 애기고라 굿을 해도렌.

아이고 굿을 해줍센 허난, 오라방은 그때 그 당시에 아무래도 육지 장사를 다녔던 고라. 나 동생아 이번에는 나가가서 육지장사가서 돈 벌영 올 때에는 너 낮이 연반물 치매 진옥색 저고리 저런 물색 옷 치마저고리 7슴.

나가 육지가서 물맹지영 갱맹지영 행왕 다음에랑 주걸랑 그 옷 해영 입영 굿도 가고 삼천기덕 일만제기 일만제기 삼천기덕이영 한 건, 북, 징, 대양 그런거 설쇠영 장구영 해왕 다음에랑 느가 앞장서 큰 굿을 해오라 허난 경 허쿠덴. 경 해신디 오라방은 육지장사를 가고 누이동생은 그 굿을 말양 가네 큰 심방 수양어멍 의지행 간 그 집이 강 막 큰 굿을 신나게 하고 초공대목이 되영 신줄 연줄은 양 단 어깨에 감양 안으로 오란, 막 된 석을 열멍 굿을 막 신이 나게 하노랜 허난 동네 할망이 굿 보래 왔단

“아이고 현씨애기 나똥애기야 너 굿은 잘 햄구나마는 너네 상 오라방 평안 바당서 배 파산되엇젠” 허난

아이고 “이 무슨 말이파” 애기가 그 옷을 입은 양 신줄 어깨에 감은 것만 공깃상 옆드레 탁 벗영 놔두고 신 신을 정신도 웃이 맨 버선창에 이 신천리 연디동산을 올란 높은 동산 올란 저 먼 바당더레 살펴보난 오라방 탄 간 배는 얹어져불고 평안 바당 희영? 돛대만 헤뜩헤뜩 햄시난 나오라방 나오라방 ?멍 이 애기가 막 땅을 치멍 통곡을 허멍, 오라방은 나를 믿영 오빠는 살고 나는 오빠를 의지헨 살단보난 의지할 곳 웃인 나는 어평행 살렌 햄수게 오라방 하멍 막 땅을 치멍 우는게 연디동산 알려레 발을 탕하게 헛디던.

그 순간 억울에 맺형 우는 순간에 발을 헛디뎡 떨어지난, 천지낙매가 된 현씨애기가 이 연디동산 아래서 죽어벧젠 험디다. 죽어부난, 동네 하르방은 뒷날 아침 새벽에 췌보레 췌 강 보젠 밧더레 영 올라가당 보난 아 연반물 치매입고 진옥색 저고리 입은 곱닥한 애기가 죽영이션. 가슴이 달락 털어진 가름에 오란 동네 어른들 고라 아이고 영 정 헌 댕기단 보난 연디동산 아래 곱닥한 애기가 죽언 이쑤덴 허난 동네 어른들 돈 모다들언 이거 어평하민 좋을거니옌 이젠 오라방은 요왕에서 죽으난 시체를 건져

올 수가 어시난 흔적삼이엔 요왕으로 간 혼을 건져다 누이동생하고 현씨애기하고 오 누이 신천리 연덕동산 옆이 쌍묘산을 무언. 쌍묘산이엔 한건 묘를 두 개 만들어네예,

그 애기들 이젠 장사를 치런 영장을 해드린거라예. 시체를 감장해드렸는데, 아이 한 3년을 살아가도 누계가 술 한 잔 감주 한 잔 안해주고 제사 명질도 안해주고 영해 가난 조상이 의탁하기를 현칩이 종손 어른 조손한테 신병이 난. 아픈날 막 이젠 치료 해도 안 낫고 굶을 해도 안났고 허난, 어디 강 들으난 점을 지난 이런 조상이 들영 이거난 큰 굶 해영 뒤올레 열나흘해영 이 어른나시 굶을 해복센 허난 굶을 해가는다

그 아픈 어른 환자 병 난 어른 입으로 딱 의탁헨 현씨일월이 대답을 하되, 나는 부모조상도 아니고 신천리 연덕동산에서 떨어정 죽은 현씨일월이고, 오라방이영 오누이 우린 물을 굶언 배고판 못살커난 삼맹일 기일제사도 하지말고 제사도 하지말고 멍질도 하지말고 안네,

고팡에 안고팡으로 안칠성과 같이 제사맹질때라 그네 메놓고 잔 우리 오누이 나시 걸영 잘 위해주고, 삼년에 한번 오년에 한번 큰대 세왕 큰 굶 하민 자손들 큰발 상부자로 살게하고 죽은 굶 하민 죽은 밧 사게하고 부자로 내어주곡 자손이영 잘 거느려주켄 하난, 아이고 어서 경 험센 한 것이 아버지가 현씨고 어머니가 고씨나네 현칩이도 밧이 번고 고집이도 밧이 벗고 줄이 번어가는 것이,

그게 안칠성으로 같이 제사 때 멍질 때는 메 한그릇 오라방나시 현씨애기 나시영 두그릇 놓고 잔 두잔 걸어드리고 또 굶을 하나 심방왕 비념을 하나 할 땐 그 팔자 굶 언 심방을 해난 조상이난 현씨일월 나시 저렇게 물색해영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해영 자리 낳 안공시로 오누이 잔 두개 걸고 계란 딱 올려 계란 두 개 올리곡 해영 일월상으로 하곡 큰 굶 할 땐 일월상으로 낳, 오라방 나시도 옷 한 벌 남자 옷 한복 한 벌 여자옷 현씨애기 나시 한 벌 해영 연반물 치마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나 이제 빨간 치마에 파란저고리나 해영, 연반물 치마 진녹색 저고리 고슴을 해영 옷 해놓고 막 신 나락 만나락 일월을 올리곡 경 해가는게 현칩이도 편안행 잘 되고 고칩이도 잘 되고 해가는게 아들간디 딸간디 밧이 번고 줄이 번엇젠 합니다게. 경 행 이제 신의 역사로서는 이런 본풀이가 되었는데 현재는 제주도도 제주시쪽으로 있고 서귀포쪽으로 이서도,

내가 이제 이 길을 45년 이상 걸어본 바로는 제주시 쪽더레는 북군 쪽드레는 현씨일월이엔 한 신화가 별로 없고 이 신천리로 신하천리 표선리 위미리 남원리 저 서귀포 신하효더레인가 하례리레 가면 현씨일월 이신 집이 많고, 현칩이 할머니가 시집을 오면 현칩이 딸이 시집을 오면 그집이가 예를 들어 강칩이든 고칩이든 이칩이든 되어도 현칩이 할머니 뒤로 밧이 번으난 현씨일월상을 낳 밧고 또 현칩이도 우선 경허곡. 경 해간 신의 역사로는 그런 줄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현씨일월이 좀 너무 불쌍하고.

이제 요즘 살기 좋은 세상도 어머니 한분만 없고 아버지 한분만 없어도 살기가 힘든데 그 옛날에 톨톨밥도 그리던 그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 죽어볼고 형제 일순도 없고 하난 기가 맥힌 조상이라 예. 이런 역사가 이선, 우리가 문화를 살리던 뭇로던 우

리 제주도 문화역사로던 좀 슬픔도 슬픔이주만 좀 생각해볼 점이 많은 신화 같아 마 씬.

열두 누이 난 죽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 불고 하니까 단 오누이 남으니까, 그 만큼 오빠는 누이동생에 내리사랑 애착심을 가지고 누이동생은 또 오빠 하나를 의지 하고 경헨 열심히 사는데 그런 조상이 그 딸 여동생 현씨애기 일월 현씨할망 현씨일 월한테 벌써 육간제비랄까 주머니가 물질레간 수 사람이 수십 명이 그 우물을 먹었주 만 하고 많은 사람, 조상이 태우니까, 너 팔자가 이러니까 주멍기가 보인거라. 게도 보아도 안 봉글 수도 잇주만, 그 애기가 그게 봉가지고 주머니에 이런 데 허리에 창 다녀지고, 다녀간 게 그 조상이 의탁해연 심방을 하랜 막 신의 병을 주연 피일차일 율어가는 거라예, 굿 밧디서 굿 소리만 들려지고. 게난 우리가 영 살아본 멀로, 저도 이 길을 걸엄주만 그 신의 병이란 게 요즘 아파서 암이여 뭐여 해도 것도 고생이지만 진짜 힘든 인생을 걸어옵니다게.

난 그 현씨일월에 대한 본풀이도 해가민 가슴이 막 벅차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굿을 다닐 때 보면 현씨일월 행 추는 환자도 많아 마썸 게고, 현씨일월로 심방 난 사람도 가끔 이서 예. 겐디 나는데 그 애기가 현씨일월 조상이 신을 막 크게 큰 심방을 하당 돌아갔으면 큰 심방을 할 건데 현씨일월 줄기로 심방난 사람이 한창 배 워올 때 딱 죽어 부니까 크게 내푸끄질 못한 덴 요런 역사도 이서 마썸. 게난 그만큼 오누이 사이가 진짜 동냥을 하러 가젠 해도 쪽박으선 동냥을 못가고 의지할 데 으시. 참 불쌍한 할머니쥬 알고 보면. 시집도 못가보고. 그런 식으로 살다 돌아가션. 이제 지금도 신의 역사로서 현칩이 어른들이나 바다에 가면 물색, 일월조상 나시 빨간색 노란색 파랑색 해영 오누이 나시 지 두겔 드려 마썸, 그런 역사가 이제 지금도 이십 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에는 현씨일월 발 번은 집안에, 현씨 아니더라도 고칩이라도 현씨 어머니가 시집오면 그 줄기가 이서. 경허민 ‘몸지’만 드리고 배하는 사람은 ‘배 서낭지’만 드리고 현씨일월 집안엔 ‘현씨일월지’를 똑 드려마썸, 막 맹심하고. 현씨일 월에 대한 역사가 좀 비극적인게 많아요 슬퍼.